

海外 치사의 1/3이 HIV로

冠狀心臟病

레이저로 치료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 있는 웨스턴병원의 심장내과 Bar and Stroud 전자기장치료사의 과학자들은 3년간의 임상실험을 통해 관상동맥질환의 치료에 큰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치료법은 부분마취를 한 후 관상동맥이 이 동맥을 통하여 환부에까지 삽입하여 레이저의 에너지로 동맥벽의 침착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지난 1년 동안 길이 1.2m의 관상동맥 레이저를 실험을 거듭한 결과 레이저 광선의 동맥벽에 침착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 동맥내의 혈류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팀의 리더인 앨렉스 엘리엇 박사는 이 새로운 기법의 이점도 초기 실험단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험은 외상 없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이저 기법의 현상들은 환자가 사람에게도 이용할 수 있고 3년에서 5년간의 치료로 이 동맥의 혈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병원체 분리 성공

지난 몇년간 전세계에 걸쳐 공포의 병으로 불리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병원체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CI) 연구팀의 의해 병원체가 분리되고 부단배양으로 그 발생 메커니즘의 규명도 치료법의 개발에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의 연구팀이 이 병원체를 분리한 것은 1982년 미국의 바르스 연구소의 조에가 같은 전문가인 AIDS 바이러스의 발견자 이 괴변의 원인이 B형 간염과 비슷한 전염체로 즉 수혈과 주사침 정액 등을 통해 옮겨지는 점에 그 병원체가 암 바이러스의 일종인 HIV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82년부터 연구에 착수, 처음에 잠정적으로 2년간의 배양체를 분리 해내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의 가장 큰 애로점인 인체면역방어작용

아주까리서 추출 암세포 파괴성분

영국의 미생물학자들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미들랜드에 있는 워릭(Warwick) 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아주까리(Warwick) 씨앗에서 추출한 물질인 리신(Licin)이라고 불리는 독성 단백질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에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대신 암세포만을 찾아 파괴하는 암세포 추적제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암제의 작용을 결합하여 개발했다. 이 리신은 분자 중독의 해라는 코브라의 독보다 훨씬 독성이 커서 동물세포에는 치명적인 물질이나 연구진들이 연구용 암세포와 혼합하여 이 혼합물을 미생물 배양 연구용 수혈 독성에 제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암세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튜어트 마이클 로크(Mike Lord) 박사 연구진은 암세포가 성장할 때 3~5년 후에는 이 새로운 암세포의 광범위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생물학 연구로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신은 A와 B 체인 두 부분의 화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A 체인 독성을 나타내며 B 체인 독성을 없애준다. 리신은 암세포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 외에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리신을 사용하여 해할 수 있었다. 이것

遺傳子發癌作用 美서 5종 첫 확인

인체의 발암작용에 5종류나 되는 유전자 한 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분과 분자생물학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4월 20일자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결과에서 D-스판과 박사 연구팀은 폐암, 자궁암, 신장암, 각종 암 환자 54명의 암세포를 채취, 「메신저」RNA로 불리는 특수한 사물질을 사용하여 암유전자가 발현되는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결장암 환자 1명에게서 「미크로스」H라스「K라스」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5개 유전자 모두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발현은 암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6명, 3종류 유전자가 3명, 2종류 유전자가 1명, 2종류 유전자가 2명, 2개 내지 11개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종전부터 암유전자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 존재하며 복수(複數) 유전자가 발현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으나 그 증거가 확인되는 이 번의 연구에 의해 판명된 것은 유전자 관여한다는 사실은 판명된 것보다 이것이 최초이다.

한편 학계는 이 연구가 암세포 「메신저」를 해명하고 유전자 발현을 개발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약 20종의 유전자는 열기배양과 아미노산배열이 추정되어 있으나 실험적으로 확인되는 못했다.

고혈압의 예방 관리법 변화해야

캘리포니아 대학 의학부 고혈압 전문인 퀴르 박사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환경적 또는 신체적 위험인자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진전을 막기 위한 방법의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대학 의학부 고혈압 전문인 퀴르 박사는 위험인자는 개인적으로가 아닌 그룹별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리스크가 높은 중년 환자와 낮은 중년 환자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사는 환자가 90~110 mmHg를 넘지 않도록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구분, 중년 환자는 약물로써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은 신경적인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신경계는 정동 변화나 영양의 영향을 받

AIDS 새 치료법

미국 국립보건원의 암연구소가 AIDS 병원체로 판명된 바이러스의 발견부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이 AIDS에 감염된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혈구에 감염된 세포를 투여한 결과 세포의 감염과 면역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밝혀져 감염과 면역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밝혀져 감염과 면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코넬」의 대 「헨리」 박사는 감염된 세포를 주입하면 면역체계를 완전히 회복, AIDS 환자를 감 염시키는 대부분의 유기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 준다고 말했다.

현재 「코넬」대 연구팀은 다른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간단·신속한 혈당검사기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테스트하는 계기가 발명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독 베링거 만하임 (Boehringer Mannheim)社가 최근 선보인 리플로체크 (Reflocheck) 혈당계는 당뇨병 환자의 피를 시험편의 테스트대에 묻혀 남은 것은 뛰어난 다음 계기에 삽입하면 눈금으로 혈당치가 표시되는 간단한 장치로서 시험편 사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자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도도 뛰어나다고 한다.

同社는 기존의 가정용 혈당계는 전시회를 갖고 문 제점을 검토한 후 이 전 문용 혈당계를 만들었는데 사가 인슐린 투여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뇨병 환자의 체내 혈당치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혈당치를 검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했다고 한다.

식품으로 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成人病엔 100% 특효

가공식품을 건강하게 먹는 지혜도 충분해 있어 건강에 대한 자신이 강해집니다.

인기 연재되고 있는 「식생활의 새 건강학」은 영양학 지식이 따로 필요없고 식품 정보가 별다르게 소용되지 않는 알기 쉽고·실천하기 쉽고·섭생치료가 용이한 새로운 식품지식이 그득합니다.

식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 책을 필독해야 하고 그러므로 건강 만점 도달

아시기만 하면 병은 이미 절반이상 치료된 것입니다.

정기구독 신청 안내
月刊「食品産業」은 정기구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신청 및 대금결제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대체구좌 또는 우편소액한 이용 우편대 체구좌가 012773-31-2632206 월간식품산업
또는 서울 신락은행(논현동 간이예금 취급소) 30304-83002210 한국상업은행(신사동지점) 150-10-012-087
● 조흥은행(한남동지점) 320-4-150132 ● 한국주택은행(논현동지점) 4457-02-83-716 ● 외환은행(강남지점) 60-13-3054-3 ● 국민은행(영동지점) 059-01-0118-891
●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전화: 274-1307, 272-6223)로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 구독료: 1년-30,000원, 한권-2,800원

國內 유일의 食品綜合誌
月刊 食品産業